주요 노동동향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2년 11월 생산은 전월대비 0.1% 증가(전년동월대비 0.6%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공공행정, 광공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1%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어 0.6%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전기장비 등에서 줄었으나,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5% 증가함(전년동월대비 3.8%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등에서 늘었으나, 숙박·음식점, 정보통신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6% 감소함(전년동월대비 2.6% 증가).

◈ 2022년 11월 소비는 전월대비 1.8% 감소, 설비투자 전월대비 1.0%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5.9%), 가전제품 등 내구재(-1.4%), 화장품 등 비내구재(-0.5%) 판매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1.8% 감소함(전년동월대비 2.2% 감소).

○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4.5%)에서 투자가 줄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2.9%)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대비 1.0% 증가함(전년동월대비 11.0%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1.4% 증가,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33.2% 증가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9	2020	2021	2020				2021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11월	10월p	11월p
생산	전산업	1.0	-1.1	4.9	-1.5	-2.9	2.9	1.3	1.7	0.6	0.9	1.5	1.2	-1.7(2.7)	0.1(0.6)
	광공업	0.4	-0.3	7.4	-0.5	-6.0	5.7	2.6	3.7	-0.6	1.0	1.1	1.6	-3.5(-1.2)	0.4(-3.7)
	제조업	0.5	-0.2	7.6	-0.5	-6.4	6.2	2.5	3.9	-0.7	0.9	1.3	1.8	-3.5(-1.2)	0.5(-3.8)
	건설업	-2.3	-2.1	-6.7	1.7	-2.3	-2.5	1.3	-5.2	-1.9	-1.1	4.1	-1.1	4.6(8.9)	1.4(10.2)
	서비스업	1.4	-2.0	4.4	-2.9	-1.5	2.2	0.9	0.6	1.7	1.1	1.5	1.2	-1.1(4.8)	-0.6(2.6)
소비	소비재 판매	2.4	-0.2	5.9	-5.9	5.3	-0.4	1.1	1.7	2.2	0.8	1.1	-0.7	-0.2(-0.7)	-1.8(-2.2)
투자	설비투자	-5.6	5.9	9.6	-2.0	2.5	2.9	1.4	6.0	0.7	-0.8	-0.2	3.9	0.4(16.6)	1.0(11.0)
물가		0.4	0.5	2.5	0.3	-0.5	0.6	0.0	1.3	0.5	0.7	1.0	0.2	-0.1(5.0)	0.2(5.0)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 ·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3)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1년 12월, 2022년 11월, 2022년 12월 기준임.
5) p는 잠정치임.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7) (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2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2%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1% 하락)

○ 2022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8(2020=100)로 전월대비 0.2% 상승함(전년동월대비 5.0%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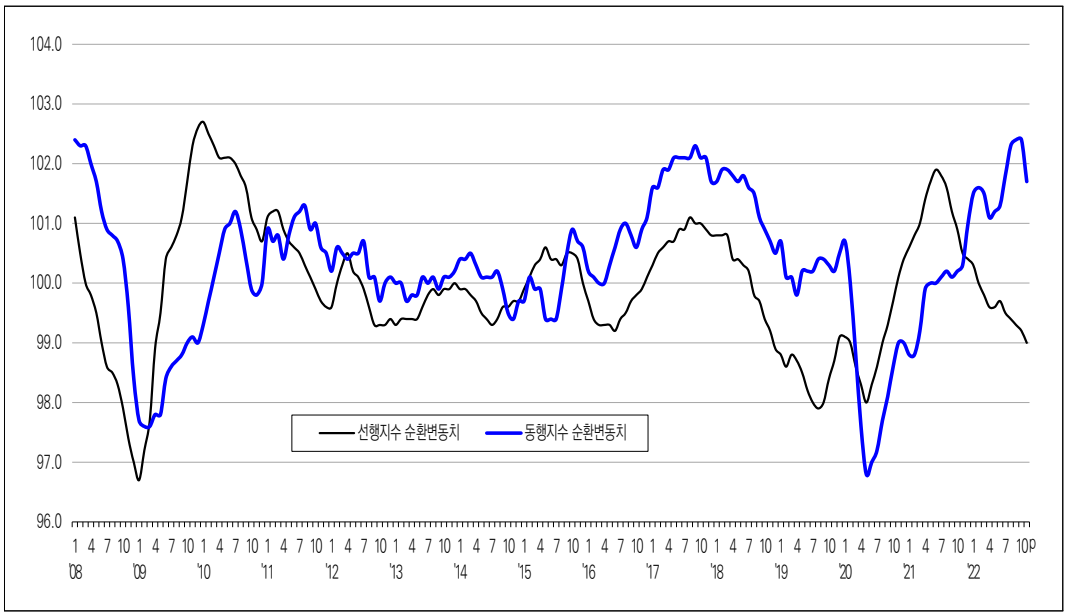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식료품 · 비주류음료(1.0%), 음식 · 숙박(0.6%), 오락 · 문화(0.8%), 기타 상품 · 서비스(0.5%), 가정용품 · 가사서비스(0.5%), 주택 · 수도 · 전기 · 연료(0.1%), 교육(0.2%), 의류 · 신발(0.2%)은 상승, 주류 · 담배, 보건, 통신은 변동 없으며, 교통(-1.8%)은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4% 상승,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4% 하락하여 전월대비 0.1% 하락함.

◈ 2022년 11월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5% 감소,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7p 하락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15년=100이 기준.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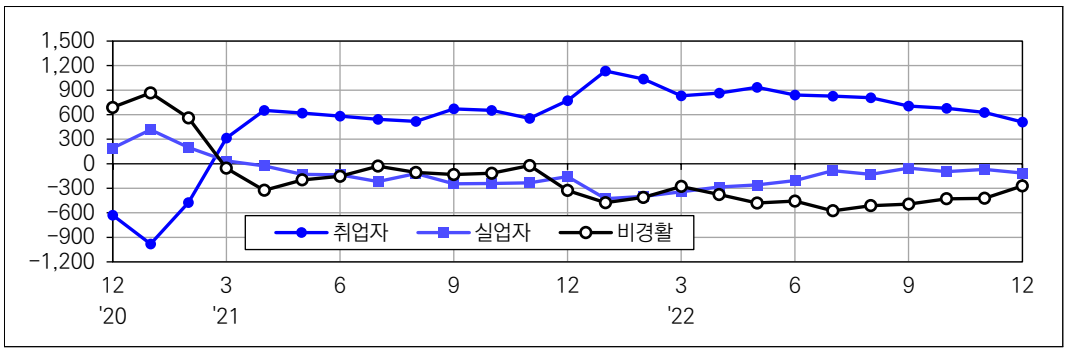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전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

○ 2022년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0만 9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전월대비[1] 4만 8천 명 감소).

- (산업별) 12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축소되고 건설업은 감소 전환됨. 서비스업은 사업관리지원 및 예술스포츠에서 감소로 전환된 반면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 (연령별) 12월은 50대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확대되거나 증가폭이 축소됨. 20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40대는 건설업에서 감소로 전환되고 60세 이상은 농림어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종사상 지위별) 12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폭이 축소됨. 상용직은 제조업 및 도소매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사업관리지원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농림어업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교육에서 감소로 전환됨.
- (일시휴직자) 12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7만 3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11월 4만 5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2만 2천 명 증가함.
- (실업자) 12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1만 3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11월 -6만 8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11만 6천 명 증가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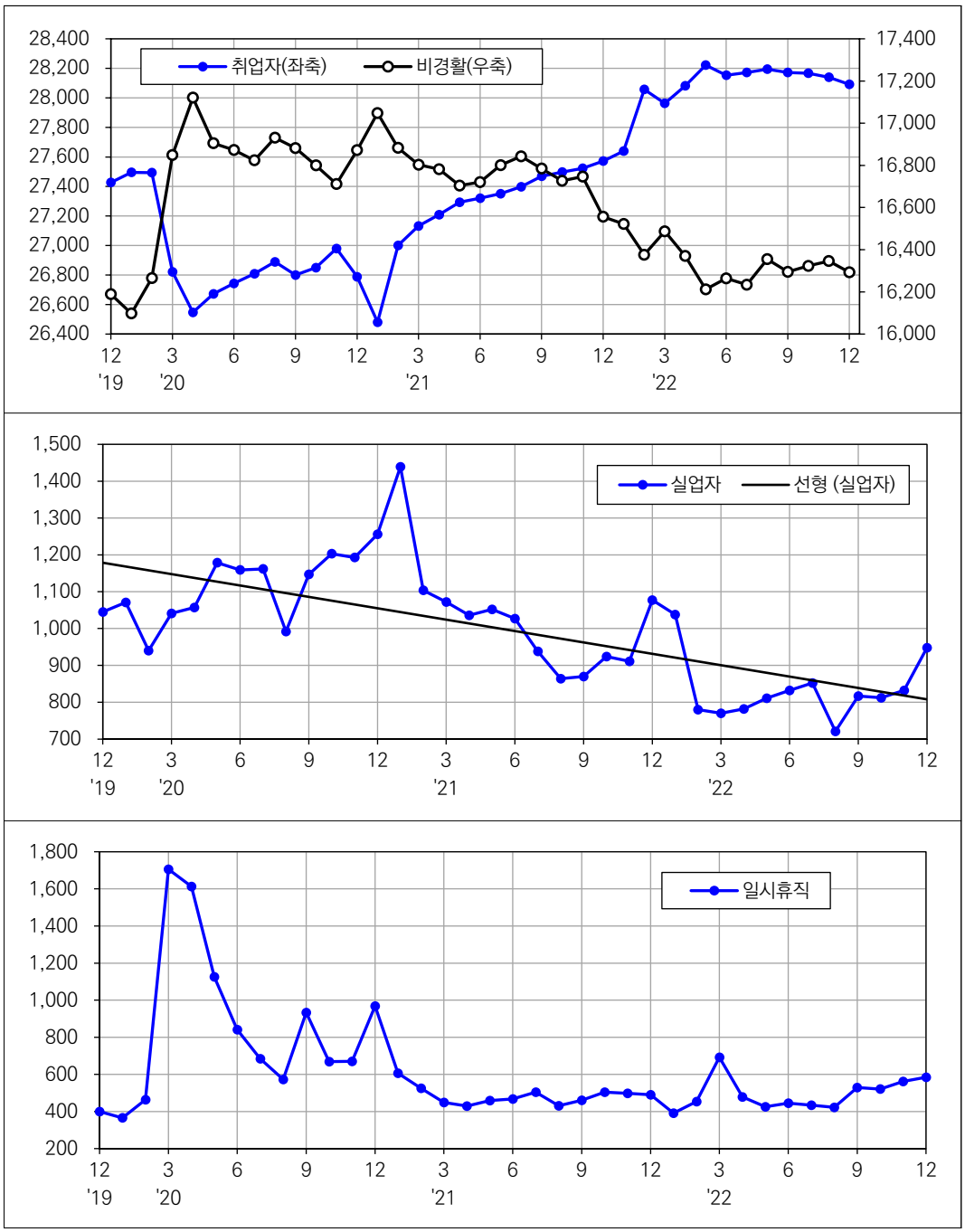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12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50대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거나 증가폭이 축소됨. 실업자는 20대에서 감소로 전환되고 60세 이상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 전년동월대비 20대 취업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40대는 건설업에서 감소로 전환되고 예술스포츠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60세 이상은 농림어업에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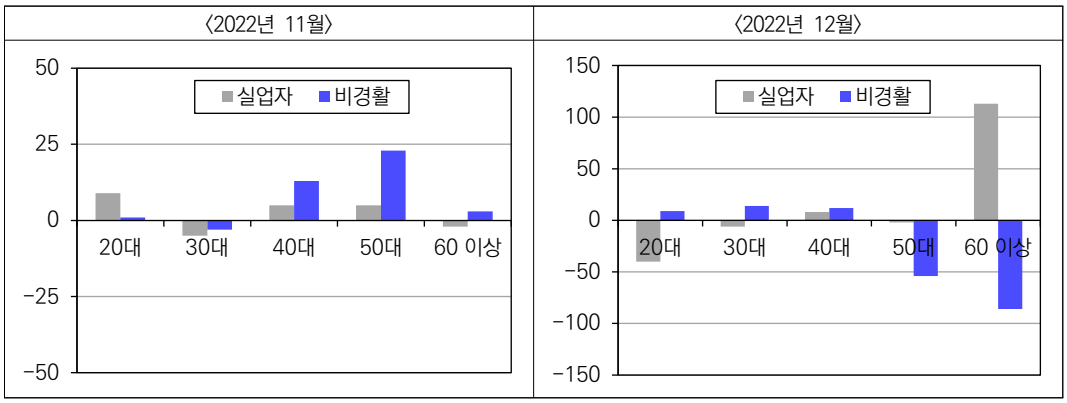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10월	11월	12월	(전월비)	10월	11월	12월	(전월비)	10월	11월	12월	(전월비)
취업자	-7	-1	-4	(0)	28	-4	-21	(15)	61	66	42	(-13)
실업자	-3	-7	-3	(6)	5	17	-21	(-40)	-13	-20	-19	(-6)
비경활	-34	-32	-27	(-6)	-193	-184	-135	(9)	-161	-156	-129	(14)
실업률	-1.8	-4.2	-1.6	(3.2)	0.0	0.4	-0.5	(-0.9)	-0.3	-0.3	-0.3	(-0.1)
고용률	-0.1	0.1	-0.1	(0.0)	2.0	1.5	1.3	(0.4)	2.1	2.2	1.8	(-0.1)
	40대				50대				60세 이상			
	10월	11월	12월	(전월비)	10월	11월	12월	(전월비)	10월	11월	12월	(전월비)
취업자	-11	-6	-57	(-29)	147	92	110	(56)	460	479	440	(17)
실업자	-18	-18	-5	(8)	-39	-27	-22	(-2)	-28	-13	-44	(113)
비경활	-60	-70	-38	(12)	-83	-45	-75	(-54)	103	65	133	(-86)
실업률	-0.3	-0.2	0.0	(0.2)	-0.6	-0.5	-0.4	(0.0)	-0.5	-0.3	-1.2	(1.7)
고용률	0.7	0.9	0.2	(-0.3)	1.5	0.9	1.2	(0.6)	1.6	1.8	1.7	(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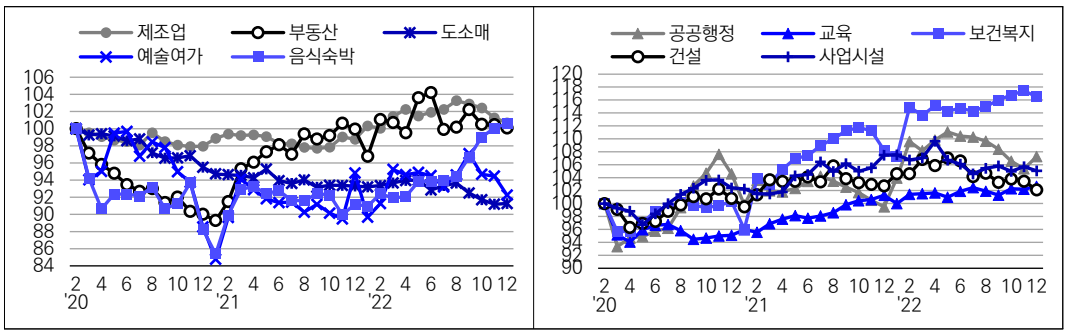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제조업, 예술여가, 보건복지, 사업시설, 건설이 감소함. 반면 음식숙박, 공공행정, 교육은 개선됨. 부동산 및 도소매는 정체됨.

– 도소매 및 예술여가는 2020년 2월 수준 이하를 유지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 (계절조정계열)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47	59	-14	-20	30	-5	4	0.3
광업	-5	-4	-5	-1	0	-1	-1	-14.7
제조업	201	101	86	-21	-51	-26	-98	-2.1
전기 · 가스 · 증기	7	6	9	-3	-1	2	-2	-1.8
수도 · 원료재생	-23	-27	-28	4	-3	3	3	2.3
건설업	12	11	-12	10	-7	-27	-24	-1.1
도매 및 소매업	-60	-78	-73	-28	-19	3	-44	-1.3
운수 및 창고업	5	-12	-14	-11	-17	-5	-33	-2.0
숙박 및 음식점업	153	231	216	54	24	12	91	4.1
정보통신업	60	52	50	-4	6	-12	-10	-1.0
금융 및 보험업	-15	-27	-20	12	-8	13	17	2.2
부동산업	7	-1	1	-9	0	-2	-12	-2.1
전문 · 과학 · 기술	56	41	45	1	11	20	31	2.4
사업시설관리지원	0	2	-32	-11	10	-9	-10	-0.7
공공행정 · 사회보장	58	59	84	-21	-13	21	-13	-1.0
교육서비스업	34	30	26	18	-1	9	26	1.4
보건 및 사회복지	121	149	184	18	15	-21	12	0.4
예술 · 스포츠 · 여가	23	26	-13	-12	-1	-11	-25	-5.0
협회 · 단체 · 수리 · 기타	-7	11	14	3	24	-4	23	2.0
가구 내 고용 · 자가소비	-2	-5	3	-3	1	6	4	4.7
국제 및 외국기관	5	3	4	1	0	0	1	2.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2년 12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이 축소되고 임시직은 감소폭이 축소됨.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상용직은 제조업 및 도소매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사업관리지원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임시직은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농림어업, 운수창고 및 교육서비스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예술스포츠에서는 감소로 전환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 (계절조정계열)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738	678	636	2	6	26	33	0.2
임시직	-85	-83	-23	-33	-5	-85	-124	-2.6
일용직	-80	-84	-76	0	-1	-13	-14	-1.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7	27	26	-13	-14	26	-1	-0.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99	129	27	33	37	-71	-1	0.0
무급가족종사자	-61	-41	-81	4	15	-37	-17	-1.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농림어업	2	3	5	-5	-14	-18	-11	-6	-6	-7	-16	-10	74	90	29
제조업	211	132	102	23	17	10	-23	-27	-23	16	5	11	-23	-19	-2
건설업	39	59	63	17	-3	5	-49	-44	-68	14	2	-1	2	10	5
도소매	40	35	15	-14	-31	-22	-8	-7	2	1	-7	-6	-32	-27	-24
운수창고	-5	-27	-21	-31	-22	-19	-3	6	11	5	7	4	38	24	10
음식숙박	84	120	121	59	68	73	7	3	9	16	20	8	-24	2	5
정보통신	57	56	55	-7	-6	-10	-5	-7	-4	2	1	-2	12	7	9
금융보험	-24	-24	-14	-5	-18	-16	3	3	0	5	4	4	6	7	6
부동산	-6	-16	-20	4	9	15	-3	0	-1	5	4	1	7	2	5
전문과학기술	43	32	30	-9	-14	-5	4	4	4	7	6	9	12	15	8
사업관리지원	-9	-9	-36	-9	4	-4	-4	-5	-9	1	4	8	16	8	9
공공행정	97	98	88	-38	-38	-2	-1	-2	-2	-	-	-	-	-	-
교육서비스	44	35	23	-25	-20	-8	5	1	10	0	-4	3	16	20	3
보건복지	157	175	209	-42	-31	-26	2	3	0	2	-1	-4	3	4	6
예술스포츠	-11	-12	-8	9	21	4	1	0	1	5	8	9	16	9	-20
협회단체	34	39	39	-13	1	-4	7	-2	1	-3	-3	-4	-28	-27	-22
가구 내 고용	-3	-3	-3	1	-1	8	-3	-4	-2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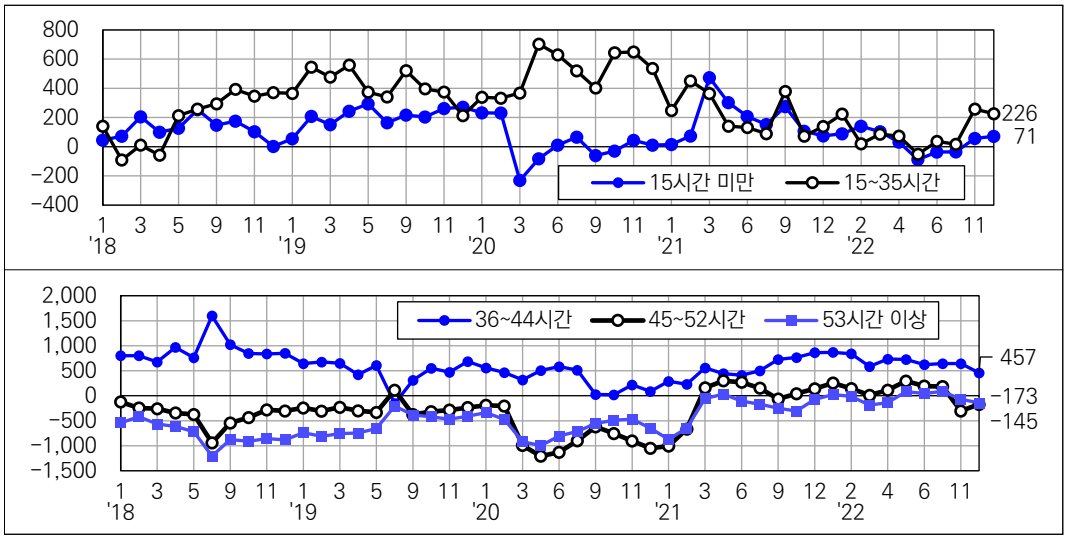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12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8.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5시간 감소함.

– 이는 45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은 감소하고 44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이 증가한 영향임.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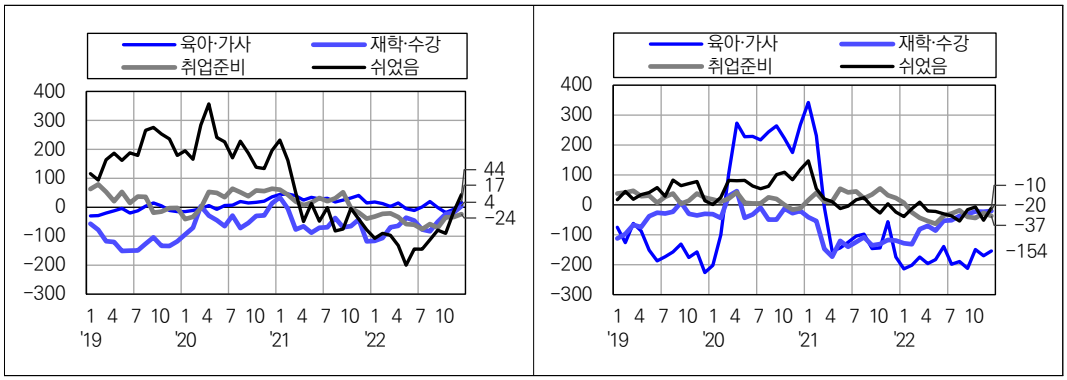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2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7만 1천 명으로 감소폭이 축소(11월 -42만 2천)됨.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9천 명으로 육아 · 가사, 재학 · 수강 및 쉬었음에서 증가로 전환됨. 여성은 -28만 명으로 주로 쉬었음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그림 6]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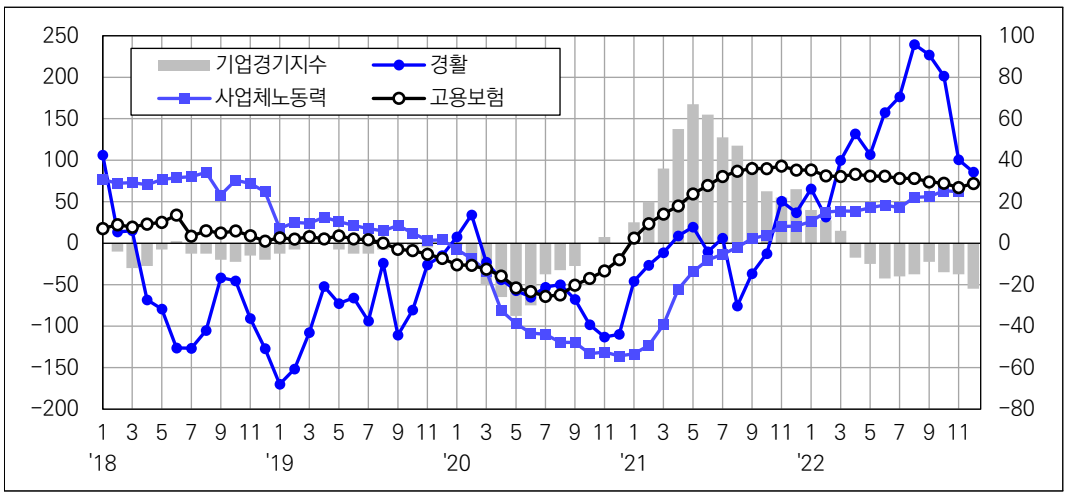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축소

○ 2022년 12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만 6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의 축소가 이어짐.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이 유지됨. 피보험자는 주로 금속가공, 전기장비, 기계장비 및 자동차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경활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2만 6천 명 감소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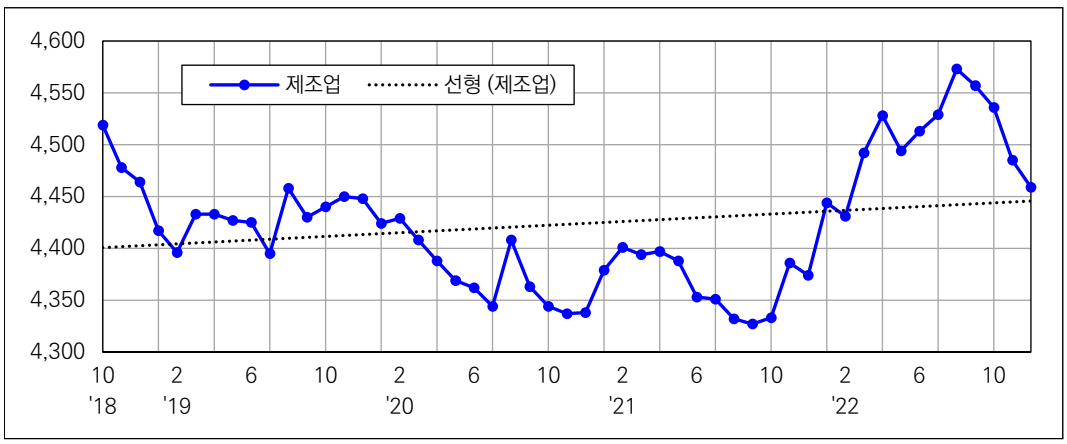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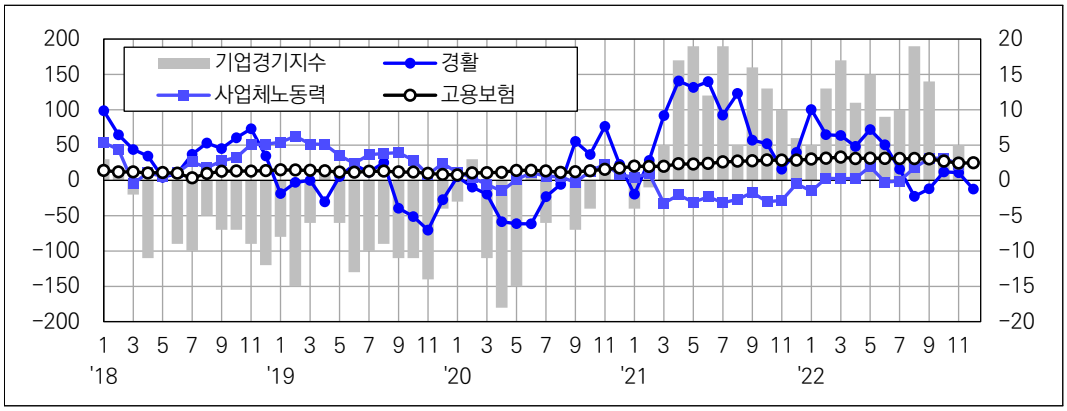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12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2천 명 감소하여 감소 전환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이 유지되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2년 12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44만 6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 (사업관리) 경활 취업자는 감소 전환됨.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는 증가폭이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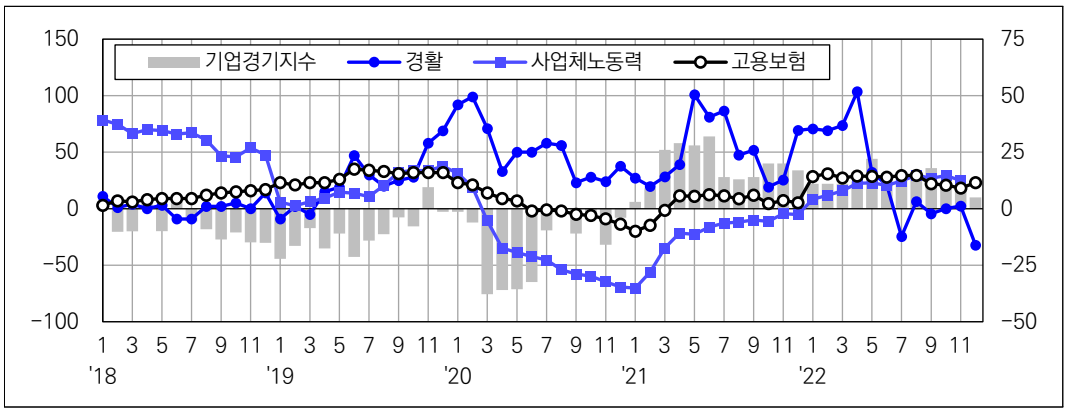
– (공공행정) 경활 취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되고 그 외 고용 지표는 감소폭이 축소됨.

– (보건복지) 경활 취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 (예술스포츠) 경활 취업자는 감소 전환되고 그 외 고용 지표는 증가폭이 축소됨.

[그림 1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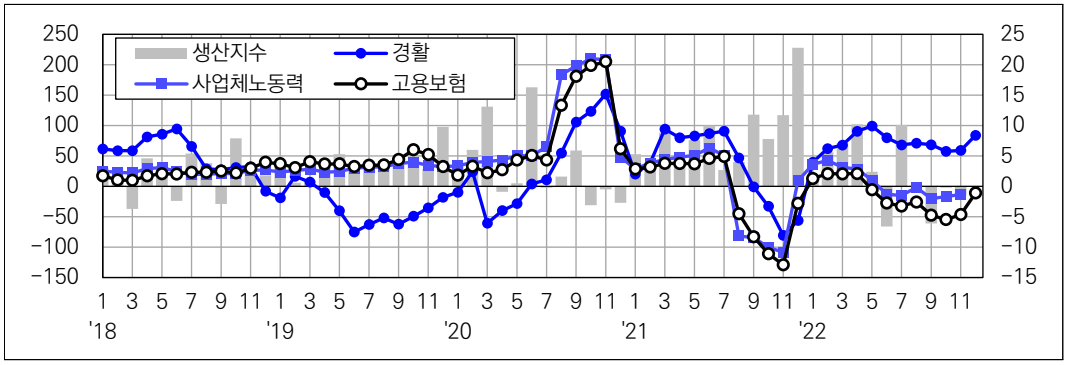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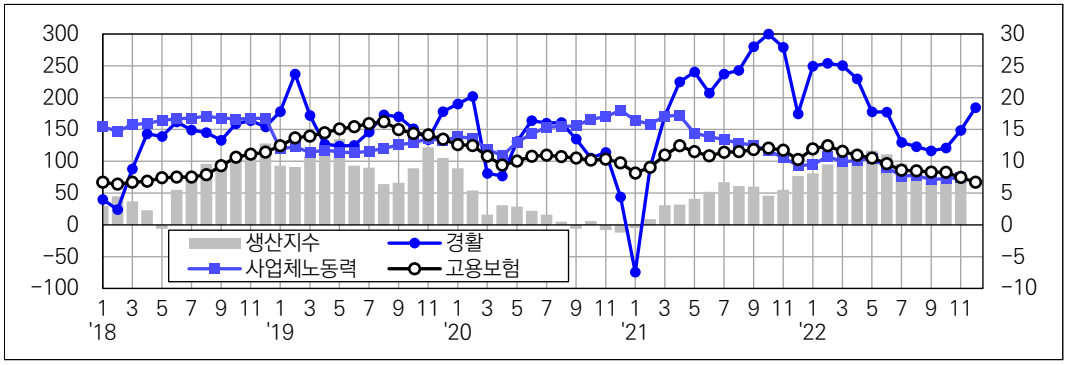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산업생산지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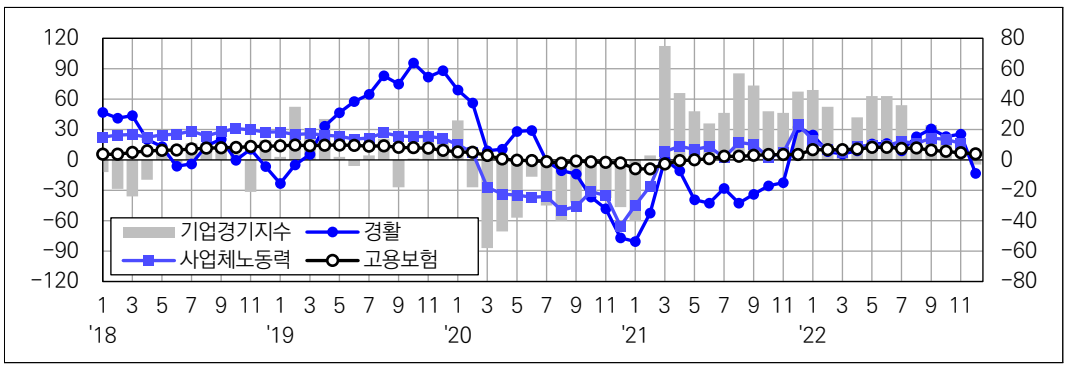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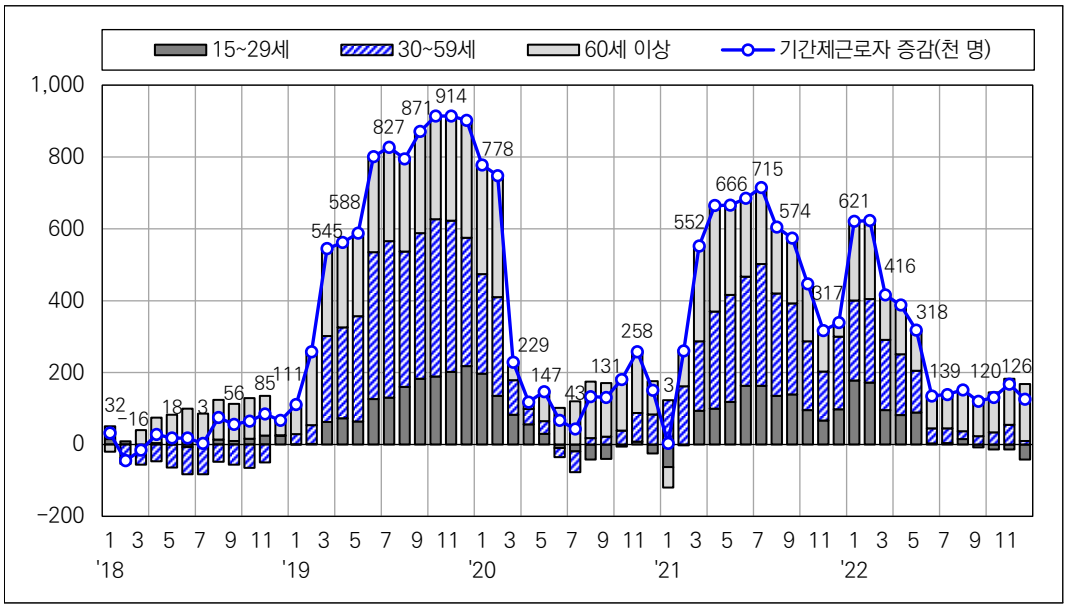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2년 12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2만 6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기간제는 연령별로 15~29세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30~59세에서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종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2년 10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5.1% 증가

○ 2022년 10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3만 1천 원(5.1%)임.

- 2022년 10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83만 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75만 2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 확대는 정액급여(4.6%)와 특별급여(17.7%)의 증가에 기인함.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는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임금협상타결금 지급 및 지급시기 변경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였음.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큰 폭의 소비자물가상승률(5.7%)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0.5% 감소함.

- 1~10월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0.1% 상승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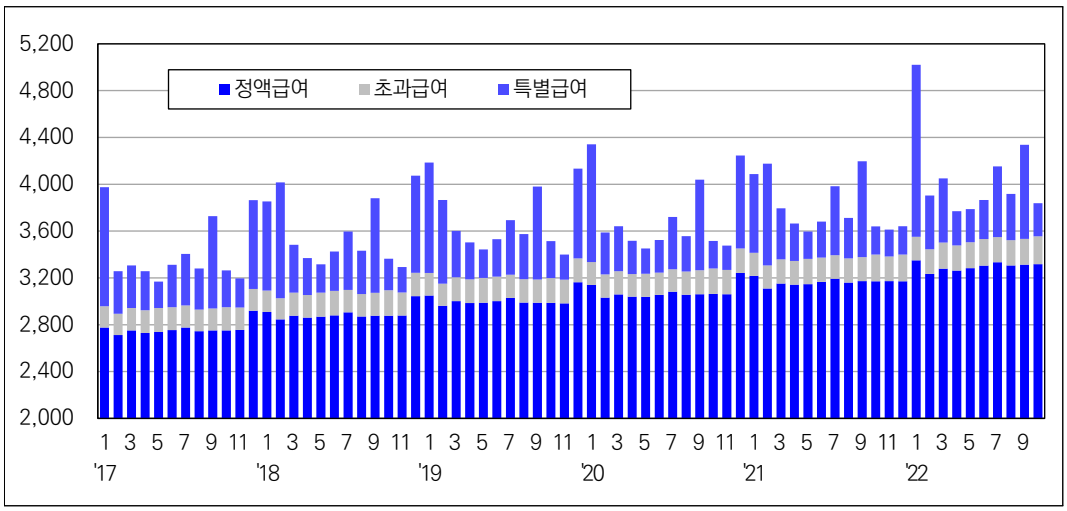
		2018	2019	2020	2021	2021		2022	
						1~10월	10월	1~10월	10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376	3,490	3,527	3,689	3,653	3,455	3,841	3,631
		(5.3)	(3.4)	(1.1)	(4.6)	(4.3)	(3.6)	(5.2)	(5.1)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592	3,702	3,719	3,893	3,853	3,640	4,063	3,838
		(5.1)	(3.1)	(0.4)	(4.7)	(4.4)	(3.5)	(5.5)	(5.4)
	정액급여	2,891	3,010	3,077	3,181	3,163	3,171	3,299	3,317
		(4.6)	(4.1)	(2.2)	(3.4)	(3.3)	(3.5)	(4.3)	(4.6)
	초과급여	197	202	200	208	207	229	219	238
		(3.7)	(2.7)	(-0.9)	(3.7)	(4.4)	(5.4)	(5.8)	(4.1)
	특별급여	504	490	441	504	483	240	545	283
		(8.5)	(-2.8)	(-9.9)	(14.3)	(12.4)	(1.8)	(13.0)	(17.7)
임시 · 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428	1,517	1,636	1,700	1,692	1,703	1,740	1,752
		(5.5)	(6.2)	(7.8)	(3.9)	(4.1)	(3.7)	(2.8)	(2.9)
소비자물가지수		104.5	105.1	105.7	104.0	103.4	103.4	109.2	109.2
		(1.5)	(0.4)	(0.5)	(2.5)	(2.2)	(3.2)	(5.1)	(5.7)
실질임금증가율		3.7	3.0	0.5	2.0	2.0	0.5	0.1	-0.5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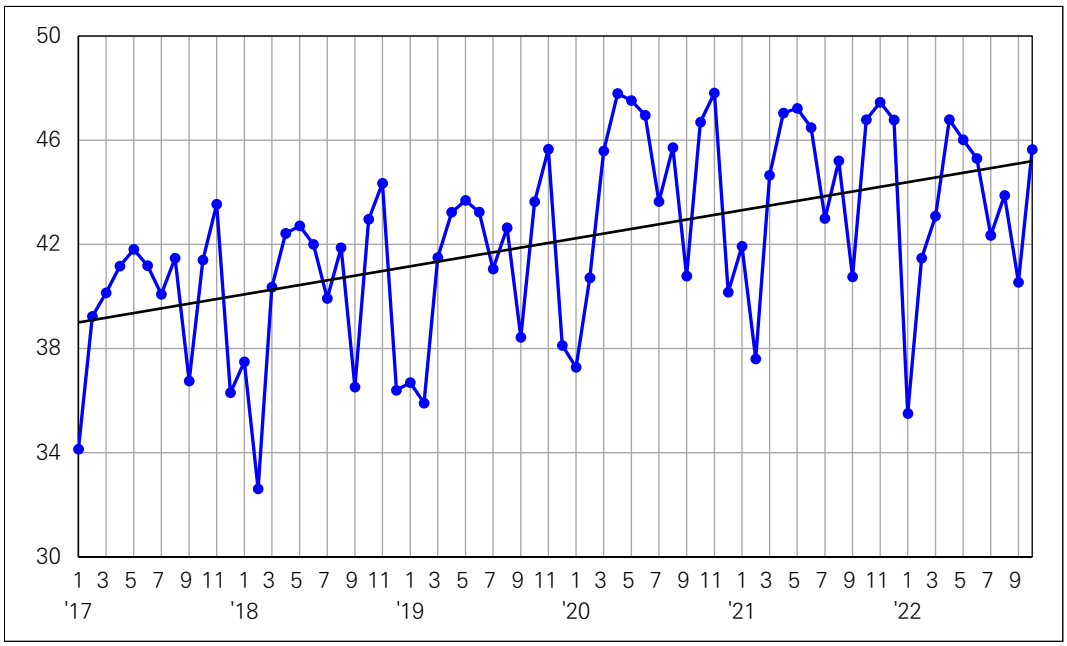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 · 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직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10월 중소규모 · 대규모 사업체 모두 임금상승폭 확대

○ 2022년 10월 중소규모 · 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2%, 7.8% 증가함.

- 중소규모(1~299인) ·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5%, 8.1% 증가함.
- 중소규모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1.0% 감소함.
-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은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임금협상타결금 지급 및 지급시기 변경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임.

○ 2022년 1~10월 평균 중소 ·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4.3%, 7.4%로 전년동평균대비 임금상승폭이 확대됨.

- 전반적으로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성과급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며, 특히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 확대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에서 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 때문임.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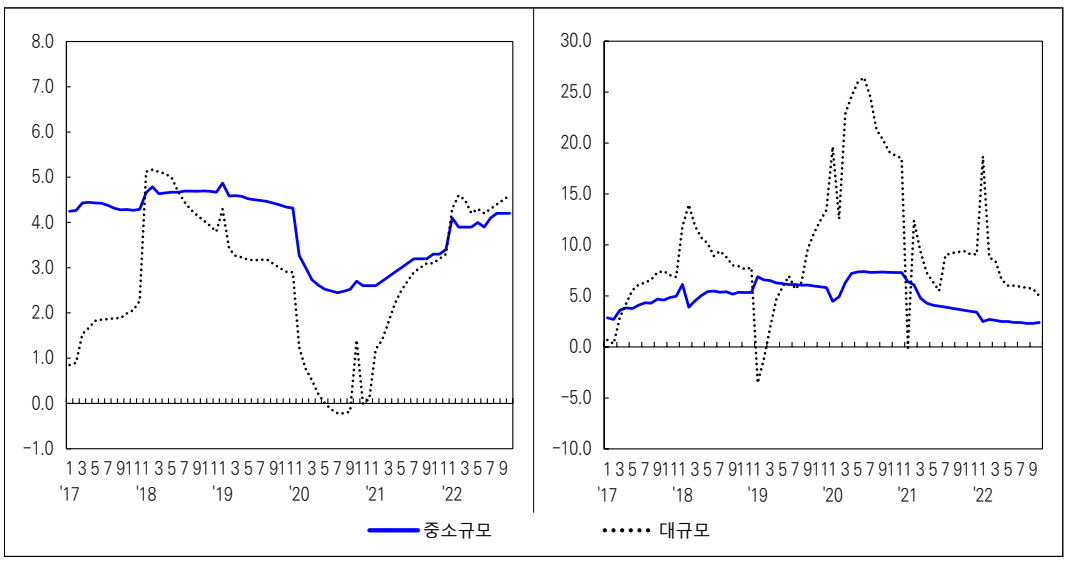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

		2020	2021	2021		2022	
				1~10월	10월	1~10월	10월
중소규모	소 계	3,193(1.7)	3,316(3.8)	3,289(3.7)	3,171(3.4)	3,432(4.3)	3,304(4.2)
	상용임금총액	3,377(1.2)	3,510(3.9)	3,479(3.8)	3,352(3.2)	3,640(4.6)	3,503(4.5)
	정액급여	2,915(2.6)	3,012(3.4)	2,998(3.3)	3,010(3.5)	3,123(4.2)	3,143(4.4)
	초과급여	171(-2.4)	176(2.9)	175(3.6)	192(3.9)	185(5.8)	201(4.9)
	특별급여	292(-9.4)	322(10.4)	306(9.5)	151(-2.0)	332(8.3)	160(6.0)
	비상용임금총액	1,615(7.3)	1,671(3.4)	1,663(3.6)	1,674(3.1)	1,703(2.4)	1,726(3.1)
대규모	소 계	5,242(-2.1)	5,582(6.5)	5,501(5.7)	4,896(4.4)	5,910(7.4)	5,278(7.8)
	상용임금총액	5,335(-2.8)	5,687(6.6)	5,602(5.8)	4,986(4.4)	6,034(7.7)	5,391(8.1)
	정액급여	3,847(0.1)	3,973(3.3)	3,937(3.1)	3,924(3.7)	4,117(4.6)	4,127(5.2)
	초과급여	340(1.4)	357(5.1)	358(5.6)	403(8.8)	377(5.4)	411(2.0)
	특별급여	1,149(-12.5)	1,357(18.1)	1,307(14.9)	659(5.9)	1,541(17.9)	853(29.4)
	비상용임금총액	2,029(18.5)	2,214(9.1)	2,216(9.4)	2,190(10.6)	2,326(5.0)	2,168(-1.0)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비상용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비상용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10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전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2년 10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9%)이었으며, 다음으로 운수 및 창고업(6.8%), 도매 및 소매업(6.7%), 제조업(6.5%) 부문으로 6%대의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2.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8%), 교육서비스업(2.9%) 부문은 평균상승률을 크게 밑도는 2%대 임금상승률을 보임.

○ 2022년 10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05만 6천 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58만 5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91만 6천 원) 부문으로 나타남.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01만 4천 원)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 천 원, %)

	2020	2021	2021		2022	
			1~10월	10월	1~10월	10월
전 산 업	3,527	3,689 (4.6)	3,653 (4.3)	3,455 (3.6)	3,841 (5.2)	3,631 (5.1)
광업	4,325	4,415 (2.1)	4,408 (2.4)	4,091 (3.0)	4,584 (4.0)	4,247 (3.8)
제조업	3,990	4,239 (6.2)	4,177 (5.8)	3,916 (4.7)	4,455 (6.7)	4,171 (6.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33	6,753 (0.3)	6,682 (0.7)	5,316 (3.4)	6,820 (2.1)	5,585 (5.1)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888	4,094 (5.3)	3,991 (4.9)	3,849 (5.3)	4,069 (1.9)	3,928 (2.0)
건설업	3,032	3,106 (2.4)	3,087 (1.9)	3,037 (4.2)	3,215 (4.1)	3,167 (4.3)
도매 및 소매업	3,423	3,551 (3.7)	3,517 (3.7)	3,397 (3.7)	3,724 (5.9)	3,625 (6.7)
운수 및 창고업	3,530	3,795 (7.5)	3,718 (6.2)	3,570 (6.1)	3,947 (6.2)	3,812 (6.8)
숙박 및 음식점업	1,879	1,905 (1.4)	1,893 (0.6)	1,907 (1.2)	2,000 (5.7)	2,014 (5.6)
정보통신업	4,613	4,796 (4.0)	4,776 (3.7)	4,444 (2.2)	4,957 (3.8)	4,586 (3.2)
금융 및 보험업	6,526	6,963 (6.7)	6,909 (7.1)	5,855 (3.4)	7,247 (4.9)	6,056 (3.4)
부동산업	2,848	2,954 (3.7)	2,931 (3.3)	2,845 (4.3)	3,075 (4.9)	2,939 (3.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871	5,106 (4.8)	5,010 (4.3)	4,601 (2.5)	5,313 (6.1)	4,916 (6.9)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411	2,492 (3.4)	2,478 (3.4)	2,444 (2.1)	2,567 (3.6)	2,531 (3.6)
교육서비스업	3,366	3,355 (-0.3)	3,386 (-0.4)	3,100 (-0.3)	3,461 (2.2)	3,189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942	3,014 (2.5)	3,007 (2.4)	2,963 (2.3)	3,117 (3.7)	3,044 (2.8)
여가 관련 서비스업	2,873	2,994 (4.2)	2,973 (4.3)	2,854 (9.2)	3,050 (2.6)	2,943 (3.1)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563	2,700 (5.4)	2,692 (5.4)	2,595 (4.4)	2,824 (4.9)	2,740 (5.6)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10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51.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4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과 동일)

○ 2022년 10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3시간 감소,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6.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시간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10월 근로일수가 전년동월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임.
-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시간이 짧은 임시일용근로자 증가 등으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임.

○ 2022년 1~10월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9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8시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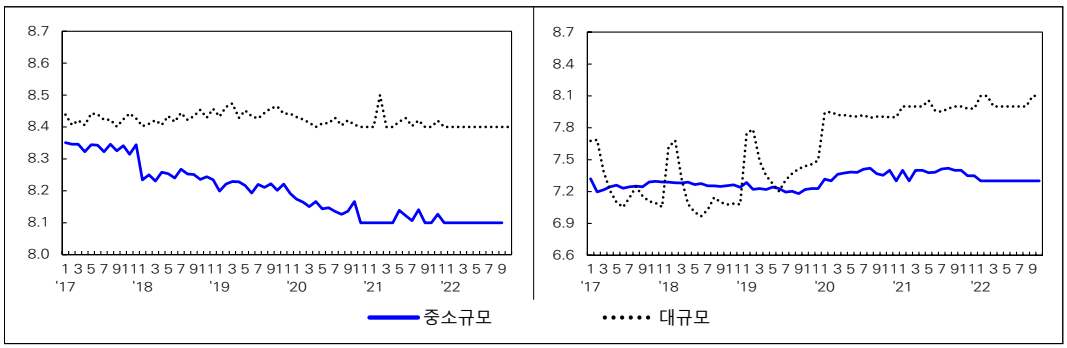
- 2022년 1~10월 누계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평균대비 1일 감소한 것과 코로나19(오미크론)의 확진자 급증 등이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줌.

○ 2022년 10월 대규모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함.

- 대규모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3.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7시간 증가한 반면, 중소규모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0.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시간 감소함.
-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 증가는 제조업 부문의 근로시간 증가 영향이며, 중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 감소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 확대 등의 영향임.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20	2021	2021		2022	
				1~10월	10월	1~10월	10월
중소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1 (-1.8)	160.3 (0.1)	158.3 (-0.6)	151.6 (1.0)	156.6 (-1.1)	150.5 (-0.7)
	상용 총근로시간	167.6 (-2.1)	167.8 (0.1)	165.5 (-0.7)	158.4 (0.9)	163.9 (-1.0)	157.5 (-0.6)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9.8 (-1.7)	160.1 (0.2)	157.8 (-0.7)	150.1 (1.0)	156.2 (-1.0)	149.3) (-0.5)
	상용 초과근로시간	7.8 (-9.3)	7.7 (-1.3)	7.7 (0.0)	8.3 (-1.2)	7.7 (0.0)	8.3 (0.0)
	비상용 근로시간	96.1 (0.7)	97.4 (1.4)	96.8 (1.3)	95.3 (0.8)	96.2 (-0.6)	95.0 (-0.3)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2.8 (-0.8)	162.3 (-0.3)	160.5 (-0.9)	150.3 (-1.3)	158.7 (-1.1)	153.0 (1.8)
	상용 총근로시간	163.9 (-1.4)	163.4 (-0.3)	161.5 (-1.0)	151.3 (-1.4)	159.9 (-1.0)	154.2 (1.9)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3.0 (-1.2)	152.3 (-0.5)	150.4 (-1.1)	138.8 (-1.7)	148.7 (-1.1)	142.1 (2.4)
	상용 초과근로시간	10.9 (-4.4)	11.1 (1.8)	11.1 (1.8)	12.6 (4.1)	11.1 (0.0)	12.1 (-4.0)
	비상용 근로시간	125.2 (19.4)	127.9 (2.2)	127.3 (1.9)	120.2 (1.3)	124.5 (-2.2)	121.7 (1.2)

주 :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10월 월평균 근로시간의 증감은 산업별로 차이를 보임

○ 2022년 10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168.5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64.7시간), 제조업(164.1시간) 부문인 가운데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27.9시간)이었음.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20	2021	2021		2022	
			1~10월	10월	1~10월	10월
전 산 업	160.6	160.7(0.1)	158.7(-0.6)	151.4(0.6)	156.9(-1.1)	151.0(-0.3)
광업	181.2	179.9(-0.7)	178.1(-0.7)	173.7(0.6)	173.3(-2.7)	168.5(-3.0)
제조업	172.7	173.5(0.5)	171.3(0.0)	164.0(0.4)	169.0(-1.3)	164.1(0.1)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3.7	161.6(-1.3)	160.4(-1.4)	141.6(-5.7)	156.9(-2.2)	147.7(4.3)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6.5	176.9(0.2)	174.5(-0.6)	167.3(0.8)	172.6(-1.1)	164.7(-1.6)
건설업	136.9	135.9(-0.7)	134.4(-1.6)	128.8(0.8)	133.4(-0.7)	128.7(-0.1)
도매 및 소매업	163.8	163.8(0.0)	161.8(-0.7)	154.4(1.1)	160.6(-0.7)	154.0(-0.3)
운수 및 창고업	159.0	160.2(0.8)	158.5(0.1)	152.7(1.5)	158.9(0.3)	154.5(1.2)
숙박 및 음식점업	149.7	148.4(-0.9)	146.9(-1.9)	146.7(0.8)	145.5(-1.0)	143.6(-2.1)
정보통신업	163.8	164.1(0.2)	161.8(-0.7)	150.8(0.5)	160.8(-0.6)	152.1(0.9)
금융 및 보험업	162.1	161.9(-0.1)	159.6(-1.1)	147.2(-0.9)	157.8(-1.1)	148.6(1.0)
부동산업	173.2	171.8(-0.8)	170.1(-1.4)	163.6(-0.8)	167.8(-1.4)	162.7(-0.6)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1.7	161.6(-0.1)	159.3(-1.1)	147.7(0.3)	158.3(-0.6)	150.3(1.8)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1.7	162.1(0.2)	160.3(-0.4)	152.6(0.4)	158.1(-1.4)	151.4(-0.8)
교육서비스업	136.6	137.2(0.4)	135.3(-0.4)	127.8(-0.4)	134.4(-0.7)	127.9(0.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6	158.3(-0.2)	156.2(-0.9)	149.4(0.9)	153.6(-1.7)	146.8(-1.7)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9.7	152.7(2.0)	151.2(1.0)	146.1(4.4)	149.6(-1.1)	144.3(-1.2)
협회 · 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0.3	162.4(1.3)	160.4(0.6)	154.6(3.1)	158.5(-1.2)	152.6(-1.3)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2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14건
  – 12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5건)보다 1건 적은 수치임.

○ 2022년 12월 조정성립률 14.3%
  – 12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57.1%보다 42.9% 적은 수치임.

〈표 1〉 2021년, 2022년 12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2. 12	14	15	2	1	1	12	3	9	0	1	6	14.3%
2021. 12	15	19	8	6	2	6	0	6	0	5	7	57.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2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1건
  – 12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0건)보다 1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2건임.

〈표 2〉 2021년, 2022년 12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2. 12	1	2	0	1	1	3
2021. 12	0	0	0	0	0	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2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67건

- 12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58건)보다 9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7.1%(45건), 기각 · 각하 · 취하 · 화해 비율이 72.9%(121건)를 차지함.

〈표 3〉 2021년, 2022년 12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2. 12	167	166	40	5	78	10	19	14	435
2021. 12	158	190	43	8	102	5	22	10	39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2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3건

- 12월 복수노조사건[1]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9건)보다 2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50.0%(2건), 기각 · 각하 · 취하 · 화해 비율이 50.0%(2건)를 차지함.

〈표 4〉 2021년, 2022년 1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2. 12	3	4	2	0	2	0	0	0	6
2021. 12	9	4	1	0	3	0	0	0	1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2022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2]에 접수된 총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555건

- 1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745건)보다 190건 적은 수치임.
- 12월 복수노조사건 처리 건수(교섭요구 공고, 교섭대표 결정,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는 전년 동월(671건)보다 151건 적은 수치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2) 〈표 5〉의 접수건수는 이월사건이 포함된 건수임.

〈표 5〉 2021년, 2022년 11월 복수노조 관련 사건 처리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계	교섭요구 공고	교섭대표 결정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
2021	787	724	158	247	106	213
2021. 11	745	671	149	232	100	190
2022. 11	555	490	117	123	79	17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매월 『노동위원회 소식지』.

◈ 전국 노조 조직률 14.2%

- 2022년 12월 25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국내 노조조직률을 14.2%로 발표했음.
- 전체 조합원 수는 293만 3,000명으로, 전년도(280만 5,000명)보다 4.6%(12만 8,000명) 늘었음.
-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노동자 수는 같은 기간 79만 5,000명(4.0%) 동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노조 조직률은 2015년 10.2%에서 2016년 10.3%, 2019년 12.5%, 2020년 14.2% 등으로 상승했고, 조합원 수도 2015년 193만 8,000명에서 2016년 196만 6,000명, 2019년 254만 명, 2020년 280만 5,000명, 2021년 293만 3,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음.
-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77만 1,000명(60.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6만 2,000명(39.6%)이었음.
- 상급단체를 보면 한국노총 조합원 123만 8,000명(42.2%), 민주노총 121만 3,000명(41.3%),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노조 47만 7,000명(16.3%) 등으로 나타났음.

◈ SPC 사업장 52곳 중 45곳서 법 위반

- 2022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는 10월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사고를 계기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SPC그룹 18개 계열사 5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음.
- 고용부는 총 6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험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했음.
- 26개소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예정임.
- 주요 법 위반 사항은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와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LOTO) 미조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심의 ·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례 등임.

- 이 밖에 모성보호, 특별연장근로 등 관련 116건의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음.
- 주요 위반 사례는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근무를 지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사례, 산후 1년 미만자에게 연장근로한도(주 6시간)를 초과해 근무를 지시한 사례, 특별연장근로 미인가자에 대해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무를 지시한 사례 등임. 이 밖에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도 적발됐음.

◈ 배달라이더 열에 아홉은 "산재보험 보상 경험 없다"

- 2022년 12월 15일 "플랫폼 배달기사 산재안전망 경험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양종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배달라이더(배달기사)들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사고 경험 라이더 10명 중 1명만 실제 산재보험 처리를 시도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고 하였음.
-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1.8%(132명)가 '지난 1년간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사고 경험 비율을 고용형태별로 보면 분리플랫폼 라이더가 31.5%로 가장 높았음.
- 사고를 경험한 배달기사 중 실제 산재보험을 신청해 보상을 받은 사례는 12%에 불과했음.
- 분리플랫폼(13.7%)과 통합플랫폼(13.6%)보다 음식점 전속(3.5%)의 산재보험 신청 · 보상 비율이 낮았음.
- 실태조사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배달라이더 60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음식점에 전속 고용된 라이더가 201명, 통합플랫폼(배민 · 요기요 · 쿠팡이츠) 소속이 204명, 분리플랫폼(부릉 · 생각대로 · 바로고 등) 소속이 200명이었음.

◈ '산재 자살' 10명 중 3명이 과로

- 2022년 12월 20일 '직장갑질119'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산재 신청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자살로 인해 산재를 신청한 경우는 2019년 72건에서 지난해 158건으로 갑절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중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2019년 47건에서 2021년 88건으로 늘었음.
- 직장갑질119가 최근 3년간 유족이 산재 신청을 해 승인받은 196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161건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분석한 결과, 노동자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가장 큰 사유는 과로였음.

- 그다음으로는 징계 및 인사처분(52건, 32.3%)이었고 직장 내 괴롭힘도 48건으로 29.8%나 됐음. 폭행(7건, 4.4%)과 성희롱(4건, 2.5%)이 뒤를 이었음.
- 산재 자살 피해는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더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음. 숨진 이들 절반(50%)이 5년 이하 근무자였음.
- 과로로 인한 사망의 경우 전체 58건 가운데 근속 5년 이하인 사망자가 37명으로 63%에 달했음.
- 범위를 근속 10년 이하로 넓히면 44명(75%)으로 늘어났음.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망자 56.3%(27명)도 근속한 지 5년을 넘기지 못했음.

◈ 육아휴직, 4명 중 1명은 '아빠'

- 2022년 12월 21일 통계청은 2021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17만 3,631명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고 밝혔음.
- 육아휴직자의 24.1%는 남성 육아휴직자로 집계됨.
-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2020년 처음 20%를 넘겼는데 올해도 전년 대비 1.5%포인트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음.
-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4만 1,910명으로 같은 기간 8.0% 늘었고,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1.1% 줄어든 13만 1,721명으로 집계됐으며 비중(75.9%)도 줄었음.
- 육아휴직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71.0%가, 여성은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 직장인이었고, 4명 이하 소기업에 종사하는 육아휴직자 비율은 남성의 경우 3.2%, 여성은 4.9%에 불과했음.

◈ 육아휴직 · 근로 단축 확대, 초등 돌봄 오후 8시까지

- 2022년 12월 28일 정부는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음.
-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키로 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기준을 완화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음.
- 정부는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늘리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도 확대할 계획임.
- 정부는 특고 · 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정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함. 늘봄학교는 전일제 교육을 목표로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학교를 말함. 그리고 마을돌봄 운영시

간도 현행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하기로 했음.

◈ 2021년 3,378명이 고독사

- 2022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음.
- 고독사한 사람은 3,378명으로, 성별 미상자를 제외한 3,346명 중 남성이 84.1%(2,817명)임. 여성(529명)보다 4배 이상 많았음.
- 고독사는 2017년 2,412명,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 1.3~1.6%, 여성 0.3~0.4%로 남성이 여성보다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음.
- 연령별로는 전체 고독사 중 20~30대 비중이 6.3~8.4%인 반면 50~60대는 매년 52.8~60.1%를 차지했음.
- 고독사 중 자살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대(56.6%), 30대(40.2%), 40대(26.0%)가 높았음. 반면 50대(16.9%), 60대(10.7%)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중년 세대는 극단적 선택보다 지병 등으로 쓸쓸하게 홀로 죽음을 맞는 이들이 더 많다는 의미임.

◈ 서울 이주노동자 10명 중 7명 비정규직

- 2022년 12월 22일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이주노동자 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음.
- 조사대상은 재외 동포(F-4), 고용허가제(H-2, E-9) 비자 등으로 한국에 들어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임.
- 이주노동자 중 76.8%는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고 있었음. 기간제가 182명(34%)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제 105명(19.6%), 일용직 73명(13.6%), 특수고용 51명(9.5%) 순이었음.
- 정규직은 124명(23.2%)으로 나타났음. 주로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23.9%)로 많이 일했고, 음식점 종업원(18.7%), 건설업 노동자(11.6%), 판매업 종사자(10.8%)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람은 절반가량(55%)에 그쳤음.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90.3%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지만, 비정규직은 44.3%에 불과했음.
-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위반한 적이 있다는 이주노동자도 33명(6.2%)이었음. 비정규직(7.3%)에서 근로계약 위반 경험이 정규직(2.4%)보다 높았음.
- 위반내용은 노동시간 54.5%, 휴게시간 30.3%, 임금지급일 18.2%, 초과근무수당 3% 등으로 분석됐음.

- 응답자의 43.4%가 주 48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었고, 52시간 이상 근무도 27.3%로 나타났음.
- 인격모독, 차별, 폭행 등도 수시로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 폭언 등 인격적 무시 경험이 22.2%로 가장 높았고, 임금·수당 등 한국인과 차별 경험 21.7%, 사적인 일 지시 10.1%, 부당해고 2.8%, 폭행 1.5%, 성희롱·성폭력 1.3% 등이었으나 10명 중 7명(73.8%)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 지난 1년간 일하다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경험한 이주노동자는 61명(11.4%)으로 나타났음. 산재가 발생한 이유는 빠른 일 처리(27.9%), 힘든 업무(23%), 안전장비 및 설비 불충분(11.5%), 장시간 노동에 부족한 휴식시간(9.8%) 등이라고 응답했음,

◈ 작은 사업장 괴롭힘 피해자 절반 '퇴사'

- 2023년 1월 2일 직장갑질119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음.
- 응답자 10명 중 3명(28%)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에 대해 "있다"고 답했음.
-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괴롭힘 정도를 물어 보니 44.6%가 "심각하다"고 답했음.
-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응답자 10명 중 7명(73.2%)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한 경우도 22.1%나 되었음.
- 회사나 노조,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6.8%였음.
-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괴롭힘을 겪은 뒤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가운데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7.4%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음.
- 5명 이상~30명 미만의 경우 25%, 30명 이상~300명 미만은 18.9%, 300명 이상 사업장은 11.3%였음.
-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15.8%가 "있다"고 답했음.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 응답 비중이 3.2%로 약 5배 차이가 났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